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교회생활, 기쁨, 기도, 감사

[살전 5: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한다’는 원어(코피아오)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며 ‘권한다’는 원어(누테테오)는 ‘권한다, 교훈한다, 경계한다’는 뜻이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말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본다. 목사와 장로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며 다스리고 권하며 교훈하고 경계하는 자들이다. 교인들은 그들을 알고 그들의 직무를 이해해야 한다.

[13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그들의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일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권면하며 돌보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목회 사역이 이처럼 귀하므로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 그들에 대한 성도들의 존경의 태도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의 태도일 것이다(마 10:40; 25:40, 45). 물론, 그들은 성경의 지식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또 본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한다. 갈라디아서에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투기’ 등의 육신의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했고(5:19-21), 에베소서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훈했다(4:2-3). 교회는 언제나 분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일치단합해야 한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무질서한, 복종치 않는 자들을 권계하며[권면,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는 서로 돌아봄으로써 다른 이의 성화(聖化)를 도우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질서한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해야 한다. 교회에는 성경의 교훈을 복종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야 하며 심신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화(聖化)는 매우 더디고 불완전하며 각 사람은 다 그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 상호간에도 모든 사람에게와 또 불신자들에게도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 주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 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39-40, 44).

### [16절]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슬픔과 대조된다. 사람의 슬픔과 슬픈 일들은 죄의 결과이나,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기쁨이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뿐 아니라 아플 때도,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또 평안할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

####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 잠언 36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교훈한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실수와 연약을 깨달을 때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는 기도로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는 때때로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결코 짐스런 일이 아니고 복된 특권이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고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해결함을 얻는다.

####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로마서 11:36, “이는 만물[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구속(救贖)하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28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고난의 단련은 성도로 하여금 죄악된 일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며, 높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

본문은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

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며 특권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교회생활을 잘 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와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하고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며 일치단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복종치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권면하며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심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된 특권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 주일오후설교

#### 마지막 심판

[계 20:7-8]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 . .

천년의 감금 기간이 다하면 사단은 그 무저갱의 감옥에서 놓여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 어질 것이다. 사단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천년 동안의 긴 감금 기간 동안 회개하거나 반성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할 결심을 하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거대한 일을 도모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 전무한 일이다.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다.

본문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다. 곡과 마곡은 구약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인용한 표현일 것이다. 거기에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로 예언되어 있다. 마지막 시대에 지구상의 사람들도 곡과 마곡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천년왕국 중에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인다.

사단은 그들을 미혹하여 마지막 전쟁에 참여케 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특권 계급처럼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통치해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의 민주적 통치를 원한다. 자, 우리가 단합하여 저들을 쳐부수고 영구적인 자유를 되찾자.” 그러나 사탄의 이 말

은 순전한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기는커녕 자신과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9-10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 . . .**

‘성도들의 진’은 부활한 성도들이 거주한 곳을 가리키고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 것 같다. 재림하신 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며 부활한 성도들도 한 곳에 모여 사는 것 같다.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놓여난 후 세상을 미혹하자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통치권을 부정하며 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 세계적 반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형벌의 때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소멸하시고 마귀를 처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의 연합군을 하늘의 불로 소멸하신 후 그들을 미혹한 마귀를 잡아 불과 유향 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거기에는 이미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가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었다. 그러나 본문에 그들이 지옥불에 던지운다는 표현은 그들이 어떤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짐승은 적그리스도 나라의 우두머리이며 거짓 선지자는 배교한 교회의 우두머리일 것이다. 이제 마귀 즉 사탄은 그들이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 6천년간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탄의 결말이며 형벌이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크고 흰 심판 보좌를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큰 심판 보좌이다. 그 심판 보좌가 흰 보좌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그는 신약성경에 마지막 심판주로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다. 요한복음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행전 10:42,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고 심판받을 모

든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여 서게 됨을 가리킬 것이다. 의인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했으므로 이때는 악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다 부활하여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공평한 처분이다. 그는 사람을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만큼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바르고 정당한 처분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자들로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심판대 앞에서 여러 권의 책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다 퍼져 있었다.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들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행위들과 구별되는 다른 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불리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책이 분명하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0:2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짓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지옥 형벌을 피할 것이다(계 20:15).

**[13-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모든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온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원소는 다시 결합되어 부활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주 예수께서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주이시다(딤후 4:1). 모든 죽은 자들

은 다 부활해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서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결코 핑계하거나 불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공정할 것이다.

몸의 죽음과 무덤, 또 악인이 부활 전까지 머물며 고통 받던 음부 곧 지옥도 최종적 지옥인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표현된다. 불못은 부활 후에 악인들이 들어갈 형벌의 장소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사망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곧 첫째 사망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일들 중 장례식이 가장 슬픔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렵고 슬픈 일이 둘째 사망의 일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 이 둘째 사망으로 인해 그의 행복과 불행이 나눌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0:28).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탄이 아무리 무섭고 강한 원수일지라도, 우리는 사탄이 결국 지옥에 던지울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사탄이 받을 최후의 심판과 형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야고보서 4:7, “미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힘쓸 것이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5:9-10).

셋째로,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주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또 성경말씀을 통해 생기며 견고해진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요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장차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부자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확실히 행복자이다.

## 수요일 설교

## 여호와와의 날

[사 2:12-22] 대저 만민의 여호와와의 한 날이 .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날, 그의 심판과 진노와 징벌의 날이 임할 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든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교만은 사람의 죄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이다. 교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매우 미워하신다. 교만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 잠언 16:18은 사람이 교만하면 패망하고 마음이 거만하면 넘어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려야 한다. 성도는 신앙적 교만도 경계해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0:26-27).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현대적 우상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인의 우상은 사람의 이성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광이나 육신적 쾌락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성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광이나 육신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지만, 그것들은 실상 다 헛된 우상들이다. 골로새서 3:5,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헛된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들은 참으로 허무한 것들이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17-18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인생을 높이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여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목표이다.